나를 뛰어넘다
SmArt 동강대학
http://www.dkc.ac.kr 062-520-2552~5 SMART 동강대학

光州日報

아파트 담보대출 시세 90%까지
DAYOU 대유와 함께 빛이나는
스마트저축은행
www.smartbank.co.kr 대표전화 1577-3800

광주 19/31℃ 목포 18/27℃ 여수 20/26℃
단기 4344년 (음력 5월 20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000호 1판 2011년 6월 21일 화요일

전남지역 고교 3년내 절반 줄인다

도교육청 대대적 구조조정 나서
2014년까지 163곳→80곳으로
전문계고 우선…내년 12곳 통합

전남도교육청이 학생수 감소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있는 도내 고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학생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고등학교가 많고 신입생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속출하면서 예산 낭비 등 각종 문제점을 불러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20일 오는 2014년까지 현재 163곳인 도내 고등학교를 80곳 정도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 구조조정이 되면 현재 수준에서 40% 가량의 학교가 줄어드는 셈이다.

구조조정은 우선 전문계고(특성화고) 통폐합을 추진한 후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대원칙은 '선택과 집중'이다. 통폐합 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등을 토대로 지역 거점 학교의 학생수를 증원하고 자연스럽게 통합 대상 학교의 학생들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내년에 63개 전문계고 가운데 12~13곳을 통합할 계획이다. 또 전문계고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모두 특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오는 28일 전남교육연수원에서 전문계고 통폐합을 위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고교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도교육청은 일반계고교까지 통폐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 교육감은 "지역에서 고등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주민과 동문 등의 반발과 아쉬움 등이 적지 않겠지만 이는 학생, 학교를 살리고 곧 지역민을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는 기숙사를 신·증축해 해결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복안이다

장기적으로 군 지역은 1~2개 거점 고교를 중심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과원교사는 재교육이나 연수 등을 통해 진로, 상담, 사서교사 등으로 전공을 유도하거나 활용할 계획이다. 재교육 등의 필요 비용은 도 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에 비해 초등학교가 사회적 역할이 큰 만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 통폐합에 따른 비전을 제시하고 동의를 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전남지역 전문계고 10곳 가운데 7곳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9곳은 절반에도 미달했다.

도내 고교 신입생 지원율은 2007년 한해 정원을 겨우 114명(1.4%) 넘긴 이후 4년 연속 미달 사태를 빚을 정도로 심각해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가정폭력상담원"
■ 교육일시 : 2011년 7월 4일(월)~
※매주 월, 화, 목, 금 18:00 ~ (총100시간)
☎062)605-1112, 1063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믿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19000호

본보 지령 19000호 호남 일간지중 최초

호남 언론의 상징, 광주일보가 21일로 지령 19000호를 맞았다. 지역민과 함께 미래와 희망을 밝히며, 지역의 역사를 써온 광주일보는 60년 가까이 시대의 변화·흐름을 주도하며 호남역사의 산 증인으로 자리매김했다. 〈관련기사 2면〉

광주일보 전신인 전남일보 창간호.

지역민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궤적을 그리며 호남 대표 일간지로서 위상을 지켜온 광주일보는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는 등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흐름인 다문화 가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시대 흐름을 앞서가고 있다.

다문화 가정과 그 2세, 이주 노동자 등을 다룬 시리즈를 장장 4년여에 걸쳐 연재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다문화 가정 문제를 국내 언론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장기간 취급하면서 국제앰네스티 언론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한국신문상, 광주·전남기자협회 대상 등 7차례 수상했다.

이와 함께 광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5·18민중항쟁과 문화중심 도시건설을 화두로 수많은 논쟁의 장을 만들고, 철저히 고찰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는 민족 상잔의 와중인 1952년 2월 10일 태어났다. 지방신문으로서는 유례없이 이승만 독재를 통렬히 비판했으며, 4·19혁명을 상세히 보도하는 등 민주화와 지역 사회의 비리 척결에도 앞장섰다.

또하나의 뿌리인 옛 전남매일신문은 4·19직후인 1960년 9월26일 탄생했다. 이들 두 신문은 1980년 신군부의 강제 언론통폐합 조치에 따라 '광주일보'라는 제호로 다시 창간됐다.

지령 19000호를 맞은 광주일보는 지역 문화 창달과 지역사회에의 봉사, 정론직필의 역사적 소명 아래 지역민의 대변지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총장은 등록금으로 파출부 월급
교수는 학생들 줄 장학금 빼돌려

광주여대 총장부부·조선이공대 교수 입건

최근 대학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예산 또는 장학금을 빼돌린 총장 부부와 교수, 뇌물을 받아 챙긴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관련기사 6면〉

광주남부경찰은 20일 자신이 재직중인 대학 예산으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돈을 빼돌린 광주여자대학교 총장 오모(50)씨와 부인 이모(47)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학교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이를 도운 도서관장 오모(45)씨 등 7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학생들에게 배당된 장학금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조선이공대학 교수 전모(여·48)씨와 조교 한모(여·24)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여대 총장 부부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4년 동안 학교 청소용역 예산 5430만원을 빼내 자신이 고용한 가사도우미에게 일부를 지급한 뒤 나머지 2500만원을 차명 계좌로 옮겨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도서관장 오씨 등 교직원들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 청소용역 수의계약을 맺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각각 2400만~3672만원씩 받고, 학교 법인 예산 2216만원을 몰래 빼돌리거나 이를 도운 혐의다.

조선이공대 교수 전씨 등 2명은 지난해 전문대 학생을 위해 정부에서 내려준 장학금 가운데 일부인 1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나 학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학교 예산이나 학생들의 장학금을 몰래 빼돌리는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척 해주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女超〉
보성군 '여초' 전국 2위

고흥·곡성이 3·4위…신안은 노령화 지수 2위

보성과 고흥, 곡성의 '여초'(女超)가 전국 시·군·구에 비해 크게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노령화지수가 높았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의 '2010 인구총조사' 항목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기준으로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 수)가 가장 낮은 곳은 경남 합천군(83.4)이었으며 보성군(84.8)과 고흥군(85.0), 곡성군(85.1), 순창군(85.7)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성비(98.7)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이처럼 이 지역이 여초(女超)가 심한 이유는 낙후된 농어촌 지역으로 여성 노인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남초'(男超)가 가장 심한 곳은 군부대 밀집지역인 강원 화천군(129.5)이었다.

또 신안은 고령인구가, 광주 광산구는 유소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 시·군·구 중 14세 미만 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경북 군위군(514.8)이었으며 경북 의성군(480.8), 신안군(444.6)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국 평균 내국인의 노령화지수는 69.7이었다.

노령화지수가 낮은 지역으로는 울산 북구(23.7), 대전 유성구(28.7), 경기 오산시(29.3), 광주 광산구(29.4), 충남 계룡시(30.2) 순으로 광주 광산구는 호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였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현지 학생들과 수업하며 생생영어 배워요
새롭다, 즐겁다, 뉴질랜드 어학연수

광주일보가 뉴질랜드 어학연수 전문기관인 한뉴문화교류센터(www.hannew.org.nz)와 공동으로 현지학생들과 수업을 받는 정통 영어 어학연수를 실시합니다.

특징1 현지학교 매일 수업참여
기존 '해외과외형' 연수가 아닌, 새학기를 시작하는 뉴질랜드 학생들과 현지학교 교실에서 연수기간 내내 정규수업을 받으면서 영어실력을 키운다.
연수생의 어학수준에 맞게 학년을 배치하며 오전엔 별도 영어교육도 실시한다.

특징2 학생 집에서 매일 홈스테이
연수생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현지 학생들의 집을 선별해 연수기간 내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홈스테이를 갖는다.
교사가 주 1회 가정을 방문해 학생의 생활상황도 체크한다.

특징3 연수생 안전에 만전
홈스테이 전담 선생님이 있어 연수생들이 현지 생활에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24시간 학생보호 시스템을 운영한다.
현지 학교 교직원과 한뉴문화교류센터 교직원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연수생들의 학교생활을 밀착 관리한다.

| 연수기간 | 2011년 7월 28일 ~ 8월 25일
| 연수학교 | Howick Intermediate School 등 4개교
| 연수대상 | 초등 4~6학년, 중학생 1~3학년
| 연수인원 | 선착순 40명
| 신청마감 | 2011년 6월 23일
| 문 의 | 062-220-0641 · 019-268-3635

| 주 최 | 광주일보사
| 주 관 | 한뉴문화교류센터